

# 일본의 십이지(十二支) 유래 설화

- <쥐와 소의 경쟁>과

<쥐와 고양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

송영숙\*

(e-mail: venussys@hanmail.net)

---

## 목 차

---

1. 글머리
  2. 십이지(十二支)의 유래 및 구성
    - 2.1 십이지의 유래
    - 2.2 십이지의 구성 및 배열
  3. 일본의 십이지 유래 설화의 유형 및 의미
    - 3.1 <쥐와 소의 경쟁> 유형
    - 3.2 <쥐와 고양이의 갈등> 유형
  4. 불교의 십이지 유래 설화의 유형 및 의미
    - 4.1 <쥐와 고양이의 갈등> 유형
  5. 마무리
- 

## 1. 글머리

인간세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물을 통해 상징하는 바를 전달하는 방식이 통용되어 왔다. 이는 동물과 관련된 외형이나 생태를 통한 상징이 인간의 의식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며, 이를 대표하는 동물이 바로 십이지이다. 십이지 동물은 자신의 존재가 우주적 공간이나 시간을 비롯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상징적 도구들이다. 이러한 십이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정초가 되면 마스크에서 올해는 무슨 띠의 해이며, 한 해를 대표하는 십이지 수호동물의 상징적 의미에 따라 새해의 운수를 예측

---

\* 전남대 일문과 강사, 일본문화학 전공.

해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 대부분의 신사에서는 그해의 십이지가 그려진 에마(絵馬)를 전시하며, 신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에마(絵馬)를 사서 축원을 담아 봉납하곤 한다. 이 또한 일본인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십이지와 관련된 생활문화의 일부라고 하겠다.

필자는 일본 민담 속에 나타나는 십이지 동물 설화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일본 민담 속에서 십이지 유래 설화의 유형 및 양상에 대해 파악하기로 한다.<sup>1)</sup> 이를 위해 먼저 십이지의 유래 및 십이지의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개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십이지와의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는 불교의 십이지 유래 설화를 제시하여 일본의 십이지 유래 설화와도 비교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기본 텍스트는 일본의 미래사(未來社) 편(1974, 전 26권)의 『일본의 민화(日本の民話)』이며, 그 밖의 문헌 설화를 함께 분석하기로 한다. 『일본의 민화』에는 각 지역별로 방대한 양의 설화가 채록되어 있으므로 십이지 유래 설화를 파악하기 위한 적합한 텍스트라고 판단된다.

민담을 포함한 설화는 한 민족의 공동체적 산물이라는 특성이 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설화는 어떤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승(口承)과 서승(書承)에 의해 전해지는 것이다.<sup>2)</sup> 따라서 설화 속에는 각 민족의 집단적 무의식이 함축되어 있으며, 집단적 무의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본 민담 속에서 십이지 유래 설화의 의미를 도출하는 본 논문은 십이지와 관련된 일본의 또 다른 특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일본의 십이지 유래 설화의 의미와 특성을 일본 민담 속에서 도출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물은 차후에 한·중·일 십이지 유래 설화를 비교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이 논문은 宋英淑(2011), 『일본 민담 속의 십이지 동물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의 일부와 중복되는 내용도 있다.

2) 설화가 한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온 이야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면 민담의 개념은 설화 전반을 칭하는 것도 아니고 환상적 옛날이야기만을 칭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쯤의 것이다. 그것은 신화(神話)·전설(傳説)과 더불어 설화의 하위 갈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동학 외(2002),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pp.164~168 참조.

3) 집단적 무의식이란 집단특유의 전통, 인습적 관념 행위를 통틀어 말하며, 문화론자들의 문화의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李符永 著(2000), 『韓國民譚의 深層分析』, 집문당, pp.15~16

## 2. 십이지(十二支)의 유래 및 구성

십이지에 대한 관념은 동서양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기원 문제와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보인다.

### 2.1 십이지의 유래

현재 정설로 여겨지는 십이지의 기원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이족(彝族)의 역법과 풍속에 나타나는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족은 천문학이 매우 발달된 오래된 민족으로 그들은 역사상 줄곧 열두 동물로서 날짜를 기록했다. 그들의 고대역법은 12생초가 세 번 윤회하여 나오는 수치인 36일을 1개월로 삼고 1년을 10개월에 분배했다. 12생초가 30번 돈 마지막에 ‘週年日’이라 부르는 5~6일을 덧붙여 1년을 365~366으로 삼은 것이다. 이족의 10월력은 大小 두 개의 新年이 있어, 1년을 추울 때부터 더워질 때까지와 더울 때부터 추워질 때까지의 두 계절로 나누고 있다.<sup>4)</sup>

위에서 지칭하는 두 개의 계절이란 정확히 말하면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인 봄과 곡식을 수확하는 가을을 가리킨다. 고대사회에서 씨앗을 파종하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농업 생산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므로 이족은 태양을 관찰하고, 때의 절기를 정확히 계산하여 열두 동물로서 10월력을 만든 것이다. 이족이 사용한 12생초에 관한 또 다른 주장을 소개하기로 한다.

근래 많은 학자들은 12生肖로서 연월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은 이족이 발명한 것이라 여긴다. 12生肖는 원래 씨족의 토렘이었다. 그곳에는 12生肖 사당(祠堂)이 있고 12生肖 무용(舞踊)이 있다. 심지어는 그 지역의 시장을 모두 12生肖의 동물 이름을 따서 쥐 시장·소 시장·호랑이 시장 등으로 불렀다. 그러므로 12生肖의 기원은 고서강족 부락연맹 중 각각 씨족의 당직 제도에 그 기원을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5)</sup>

4) 劉堯漢(1984), 『彝族天文学史』, 雲南版, p.35 참조, 십이지의 기록은 하대(夏代) 우임금 시절인 기원전 22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 華惠倫 외(1990), 『12生肖叢書, 蛇』,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7~8

이족에게 십이지의 생성 목적은 토토텐의 대상으로 출발하여 상징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기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의 주장은 오늘날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이족 기원설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이족이 거주했던 지역에서 십이지를 증빙(証憑)할 수 있는 유물이거나, 전해지는 문화습속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굴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십이지의 유래를 뒷받침하는 위의 예문은 십이지의 기원을 논하는 다양한 주장 중의 일부이며, 십이지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단지 십이지 문화가 중국의 소수민족에서 발생하여 중원으로 전래되었고, 늦어도 후한(後漢)에 완성되어서 보편화된 뒤, 인접 국가와 지역으로 다시 전파되었다고 여기는 것이 현재로서는 일반적이다.<sup>6)</sup>

## 2.2 십이지의 구성 및 배열

십이지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의 열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이것을 중국에서 기년(紀年)에 응용하여 정리한 것은 기원 전후이며, 12주년을 하나의 주기로 하여 연도를 십이지지(十二支地)로 나누어 기록하는 간지기년법(干支紀年法)을 사용하였다.<sup>7)</sup> 이러한 관념적인 십이지를 동물로 형상화 한 것은 한대(漢代)이며, 12개의 지지에는 각각 상징하는 동물이 배치되었다.

십이지에 배치된 12동물은 사람이 태어난 해를 가리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열두 띠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십이생초(十二生肖), 일본에서는 에토(干支)라고 한다. 쥐띠(子-鼠)·소띠(丑-牛)·범띠(寅-虎)·토끼띠(卯-兎)·용띠(辰-龍)·뱀띠(巳-蛇)·말띠(午-馬)·양띠(未-羊)·원숭이띠(申-猿)·닭띠(酉-鷄)·개띠(戌-狗)·돼지띠(亥-猪)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십이지 동물의 배열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다.

첫째, 발가락 우기설(偶奇說)이다.<sup>8)</sup> 이는 열두 동물의 신체적 특징 중의 하나인 발가락 개수에 의한 분류로, 발가락 개수가 홀수(奇數), 짝수(偶數)의 순차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을 말한다. 발가락 우기설은 고대음양설에서 말하는 기수는 양(陽)이 되고 우수는 음(陰)이 되며, 12지지(支地)는 음양에서 나왔다는 논리에 부합되어 생겨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음양시위설(陰陽時位說)이다.<sup>9)</sup> 음양가(陰陽家)들은 12지지(地支) 중에서 자(子)·인(寅)·진(辰)·오(午)·신(申)·술(戌)을 양(陽)으로, 축(丑)·묘

6) 양희석(2010), 「띠와 쥐의 설화」, 『中国文学』제65집, 中国語文学会, p.16 참조.

7) 李濼旭 著(1999), 『韓國의 띠문화』, 황금시대, pp.15~17

8) 李濼旭 著(1999), 앞의 책, pp.72~73

9) 李濼旭 著(1999), 앞의 책, pp.73~74

(卯)·사(巳)·미(未)·유(酉)·해(亥)를 음(陰)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음양가들의 시간적 개념과 열두 동물의 발가락 숫자가 지니는 음양의 의미를 합하여 십이지의 배열 순서를 설명한 것을 음양시위설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십이지 하면 곧바로 십이수(十二獸)를 떠올릴 정도로 십이지는 상징적인 동물로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십이지를 십이지에 해당하는 띠 동물, 즉 십이수로 간주하고 논지를 전개하기로 한다.

### 3. 일본의 십이지 유래 설화의 유형 및 의미

일본의 십이지 유래 설화에 대한 유형은 <쥐와 소의 경쟁>과 <쥐와 고양이  
의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양상 및 상징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3.1 <쥐와 소의 경쟁> 유형

이 유형은 십이지에서 일등을 한 쥐와 이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소와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이다. 『일본의 민화』에는 <쥐가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이유(ねずみが猫に食われるわけ)>(제6권), <십이지에서 빠진 고양이(十二支からおちた猫)>(제6권), <십이지 이야기(干支のはなし)>(제17권), <십이지의 기원(十二支のはじまり)>(제25권)이라는 제목으로 총 4화가 실려 있다.<sup>10)</sup> 이 중에서 제6권, <십이지에서 빠진 고양이>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사례 1]

옛날에 어느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세신(歲神)이 동물들에게 새해 첫 날에 나에게 세배하러 가장 일찍 온 자부터 열두 번째까지를 순서대로 1년간 대장으로 삼겠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동물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1등이 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로 궁리했다. 그런데 고양이가 세신에게 세배 가는 날을 잊어버려서 쥐에게 묻자, 쥐는 일부러 하루를 늦게 가르쳐 주었다. 고양이는 쥐가 틀리게 가르쳐 주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설날이 되었다. 소는 다른 동물들보다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일찍 출발하려고 밤에 몰래 준비를 끝낸 뒤 아직은 어두운데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때 쥐는 몰래 소 등에 올라탔으나, 몸집이 큰 소는 쥐의 이런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세신의 궁전을 향해 갔다. 세신의 궁전 앞에 이르러 다른 동물들의 모습이

10) <십이지 이야기(干支のはなし)>(제17권)에서 ‘십이지 이야기’는 민화의 제목이며, ‘제17권’은 『日本の民話』의 권수를 말한다. 이하의 인용문에서도 이와 동일하다.

눈에 띠지 않자 소는 자신이 일등이라며 기뻐하면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소 등에서 쥐가 쪼르르 달려 들어가서 일등이 되었고 소는 이등이 되고 말았다. 이어서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순서대로 궁전에 도착하여 세신에게 신년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쥐에게 설날 다음날이라고 들어서 늦게 도착한 고양이는 세신에게 하루 늦게 왔다고 비웃음을 당했고, 결국엔 그 무리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는 쥐를 미워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사이가 나쁘다고 한다.<sup>11)</sup>

[사례 1]은 쥐가 소 등에 몰래 올라타고 가서 열두 동물 중에 1등이 되고, 소는 분하게 2등이 되고 만다는 십이지의 유래를 말하는 전형적인 이야기이다. 십이지의 처음인 쥐를 중심으로 본다면 쥐와 소의 경쟁담으로 볼 수 있으며, 결론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쥐와 고양이의 갈등담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쥐와 소의 경쟁을 중심으로 논하겠으며, 이야기를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세신이 동물들에게 설날에 인사 하러 오라고 포고령을 내린다.
- ② 고양이가 세신에게 인사가는 날을 잊어버려서 쥐에게 묻자 쥐가 일부러 그 다음날을 가르쳐 준다.
- ③ 소는 자신의 걸음이 느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하루 일찍 출발한다.
- ④ 쥐가 소등에 몰래 올라타고 세신의 궁전 앞까지 간다.
- ⑤ 쥐가 소등에서 뛰어내려 소보다 먼저 세신의 궁전으로 들어간다.
- ⑥ 쥐가 1등이 되고, 소가 2등이 되었으며 십이지의 나머지 동물들이 차례대로 들어간다.
- ⑦ 고양이는 쥐에게 속아서 십이지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쥐와 사이가 나쁘다.

이번에는 세키 게고(関敬吾)가 집성한 『日本昔話大成』에서 ‘동물경주’의 범주로 분류한 십이지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 [사례 2]

아주 옛날에 어느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신이 동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러 가장 빨리 온 자부터 12번째 까지를 1년간 동물들의 대장으로 삼겠다는 포고

11) 『日本の民話』(제6권), pp.21~23의 내용을 필자가 번역한 후에 요약한 것이어서 원문을 기재할 수 없다. 이하의 인용문도 이와 동일하다.

령을 내렸다. 동물들은 자신들이야 말로 1등을 하겠다며 설날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고양이는 신에게 가는 날을 잊어버려서 쥐에게 물었는데, 쥐는 일부러 하루를 늦춰서 가르쳐 주었다. 드디어 설날이 되었고, 소는 걷는 것이 느리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빨리 출발하려고 밤에 준비를 하고 아직 어둡지만 밖으로 나왔다. 이때 쥐가 슬쩍 소 등에 올라탔으나 소는 그것도 모르고, 하느님의 궁전이 가까이 보이자 아무도 오지 않은 것에 기뻐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문이 열리자 소 등에서 뛰어 내린 쥐는 쫓르르 달려서 1등이 되고, 소는 2등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뱀뱀지가 뒤를 이었다. 고양이는 하루 늦게 왔기 때문에 무리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고양이는 쥐를 미워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다.<sup>12)</sup>

[사례 2]는 십이지에서 쥐는 1등이 되고 소는 2등이 되며, 더불어 고양이가 십이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도 나타나 있다. 이야기를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신이 동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러 가장 빨리 온자부터 12번째까지를 1년 간 동물들의 대장으로 삼겠다는 포고령을 내린다.
- ② 고양이가 쥐에게 신에게 가는 날을 잊어버려서 묻자, 쥐가 일부러 설날 이튿날을 가르쳐 준다.
- ③ 소는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하루 일찍 출발한다.
- ④ 쥐가 소등에 몰래 올라타고 신의 궁전 앞까지 간다.
- ⑤ 신의 궁전 문이 열리자, 쥐가 소등에서 뛰어내려 소보다 신의 궁전 안으로 먼저 들어간다.
- ⑥ 소가 2등이 되고 나머지 동물들이 차례대로 들어간다.
- ⑦ 고양이는 쥐에게 속아서 하루 늦게 갔기 때문에 지금도 쥐와 사이가 나쁘다.

[사례 1]과 [사례 2]의 내용은 쥐가 소 등에 몰래 올라타고 가서 1등이 되며, 소는 2등이 되고 쥐에게 속은 고양이는 십이지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동일한 서사구조로 전개된다.<sup>13)</sup> 여기서는 먼저 쥐와 소의 경쟁에 논지의 초점을 맞춰서 전개하기로 한다.

십이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래의 십이지에다 각각의 상징적인 동물들

12) 関敬吾(1987), 『日本昔話大成』 1, 角川書店, pp.82~83.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桜井徳太郎(1996), 『昔話の民俗学』, 講談社, pp.240~241에도 수록되어 있다.

13) 『日本昔話大成』에 가고시마현(鹿児島県) 3화, 구마모토현(熊本県) 1화, 나가사키현(長崎県) 1화, 사가현(佐賀県) 2화, 후쿠오카현(福岡県) 1화, 고치현(高知県) 등에서 1화가 전해진다. 분포된 지역으로 미루어 볼 때 <쥐와 소의 경쟁>의 유형은 일본인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을 배정하여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십이지의 배열과 순서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근거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십이지 유래 민담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단지 십이지 동물 중에서 쥐가 처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소가 그 다음으로 2등이 되는 이야기만이 무성할 뿐이다. 이는 십이지에 선택되는 동물과 배열 순서를 결정짓는 내용이지만, 유독 십이지 동물 중에서 쥐와 소의 경쟁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 외의 동물들은 쥐와 소의 뒤를 이어서 들어왔다는 정도이고 각자의 순서를 뒷받침 해주는 자세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외형상 나타나는 쥐의 약삭빠름과 소의 우직한 외모에 초점을 맞춘 생태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쥐는 외모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몸집이 자신보다 엄청나게 큰 소 등에 몰래 올라타고 신의 궁전 앞까지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도 소 등에서 쫓르르 달려 내려와 소보다도 재빨리 신의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게다가 시험 전날 밤에 쥐가 소의 집 천정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소가 길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것을 살피는 모습은 야행성인 쥐의 습성과도 일치되는 점이다.

하지만 쥐가 십이지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례 1]과 [사례 2]에서처럼 단순히 약삭빠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십이지에서 자(子)에 해당되는 쥐는 십이지의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는 위치이며, 이는 쥐의 특별한 앞·뒤 발가락의 수와 깊은 관계가 있다. 달리 말하면 앞발이 넷, 뒷발이 다섯인 점은 시기적으로 음(陰)에서 양(陽)으로 넘어가는 때를 의미한다.<sup>14)</sup> 이는 시간적으로 음·양이 교차하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를 상징하는 것과도 일치되며, 이때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이른 시기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몸에 음양이 공존하는 동물은 십이지 중에서 쥐뿐이며, 따라서 쥐는 십이지에서 첫 번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는 십이지의 선발에서 2등을 한 소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기로 한다. 소는 예로부터 행동은 느리지만, 반면에 근면함과 묵묵함은 유유자적의 여유, 한가로운 대인(大人), 은자(隱者)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불교에서는 특히 소를 통해 참자아를 찾는 수행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소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사례 1]과 [사례 2]에서처럼 신이 명령한 일을 수행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소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신의 약점을 미리 깨닫고 다른 동물들과 경쟁하기 위해 시험일보다 하루 일찍 출발한다. 우직한 소는 약삭빠른 쥐가 자신의 등에 올라탄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묵묵하게 밤새 잠 한숨도 자지 않은 채 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하루를 먼저 출발하는

14) 吉野裕子(1994), 『十二支 - 易・五行と日本の民俗』, 人文書院, pp.24~29 참조.

성실함을 보였던 소는 재빠르게 머리를 썼던 쥐에게 밀려서 2등이 되고 만다. 이와 같이 쥐와 소를 포함한 각각의 십이지 동물들은 신이 내건 명령을 따르기 위해 출발하였고, 마침내는 자신들의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즉 열두 동물은 뚜렷한 목표를 향해 출발했기 때문에 동물들 중에서 1년씩 대장을 할 수 있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설화에서 ‘출발’의 모티프는 주로 신분상승이나 삶의 발전을 꾀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사례 1]과 [사례 2]에서 열 두 동물들의 출발의 목적은 신에게 인정을 받아서 1년씩 대장을 맡는 것이었다. 이는 이전까지의 삶보다는 미래를 향한 자기발전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일등을 둘러싼 열두 동물들의 출발을 신에게 인정을 얻으려는 긍정적인 암시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어떤 시련이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입사상징(入仕象徴)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십이지 유래 설화에서 동물들의 ‘출발’ 모티프와 관련된 내용을, 특히 자신의 부족함을 미리 깨닫고 신이 내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소의 행동을 통해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소의 성실함과 묵묵함이 드러나는 십이지 유래 설화는 불교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찾아 헤매는 수행자의 참된 모습과도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례 1]과 [사례 2]에는 쥐의 약삭빠름과 소의 우직함이 대비되어 각각 십이지에서 1등과 2등을 차지한다는 단순한 구도가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쥐와 소의 경쟁>의 유형은 두 동물의 크기가 매우 대조적이라는 몸집의 차이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십이지에서 쥐가 일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쥐의 발가락이 한 몸에 음양의 수를 지니는 생태적인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 3.2 <쥐와 고양이의 갈등> 유형

이 유형은 십이지에서 고양이가 빠진 이유와 쥐와 고양이가 어떠한 연유로 천적관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유래담이다. 『일본의 민화』에는 <쥐가 고양에게 잡아먹히는 이유(ねずみが猫に食われるわけ)>(제6권), <십이지에서 빠진 고양이(十二支からおちた猫)>(제6권), <십이지 이야기(干支のはなし)>(제17권), <십이지의 기원(十二支のはじまり)>(제25권)이라는 제목으로 총 4화가 실려 있다. 이 중에서 제6권, <쥐가 고양에게 잡아먹히는 이유>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사례 3]

옛날에 어느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 다이진구(太神宮)님이 동물들에게 설날 아침에 가장 빨리 인사를 하러 온 자부터 12번째 까지는 순서에 의해 1년씩 동물들의 대장을 삼켰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짐승들은 자신이야말로 1등을 할

거라며 설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사이에 고양이는 인사하러 가는 날을 잊어버려서 쥐에게 물었지만, 쥐는 일부러 하루를 늦춰서 가르쳐주었다. 마침내 설날이 되었다. 소는 걸음이 느려서 다른 동물보다 일찍 출발하지 않으면 질 것이라 생각하고 아직 어두운데 길을 나섰다. 쥐는 몰래 소등에 올라탔으나, 소는 그런 것도 모르고 다이진구님의 집 앞까지 갔다. 그리고 소는 다른 동물이 보이지 않자 기뻐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문이 열리자 쥐가 소 등에서 뛰어 내려서 1등을 하였다. 소는 분했지만 2등이 되고 말았다. 그 뒤로는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순서로 이어졌다. 고양이는 하루 늦어서 다이진구(太神宮)님에게 꾸지람을 들었고 무리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 때문에 고양이는 쥐를 미워하게 되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이가 좋지 않으며 쥐를 보면 즉시 쫓아가서 잡아먹는 것이다.<sup>15)</sup>

[사례 3]은 십이지가 정해지는 내용인면서, 동시에 유독 고양이가 쥐만 보면 쫓아가서 잡아먹게 된 유래이기도하다. 십이지가 결정되는 내용은 앞서 언급한 <쥐와 소의 경쟁>의 유형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고양이가 쥐에게 속아서 목적지에 하루 늦게 도착하여 십이지에서 제외되는 것과, 다이진구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다는 내용이 색다르다. 달리 말하면 <쥐와 고양이의 갈등>의 유형은 고양이가 쥐에게 속아서 십이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둘 사이가 천적이 된 유래담인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사례 4]

옛날에 하느님이 동물들을 모이라고 하여 가장 먼저 온 동물부터 열두 번째까지를 십이지로 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고양이는 그 날을 잊어버려서 쥐에게 묻는다. 그러나 쥐는 일부러 시합하는 날이 아닌 그 다음날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소는 자신의 걸음이 느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빨리 출발한다. 이때 쥐는 소등에 올라탄다. 그리고 소가 집합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쥐가 재빨리 소 앞으로 뛰어내려 1등이 되고, 소는 2등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십이지의 처음은 쥐, 소의 순서로 되지만, 이하의 다른 동물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쥐에게 속은 고양이는 하루 늦게 출발해서 하느님에게 “얼굴이나 씻고 나와”라는 말을 들었고 십이지에는 들어 갈 수 없었다.<sup>16)</sup>

[사례 4]의 내용 역시 고양이가 쥐에게 속아서 십이지에서 제외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고양이가 하느님에게 하루 늦게 가자 “얼굴이나 씻고 다시 나와”라는 면박을 듣게 된다. [사례 3]에서 고양이가 단순히 꾸지람을 들

15) 『日本の民話』(제17권), pp.422~423

16) 福田アジオ他 編集(2000), 『日本民俗大事典』, 弘文館, p.819의 원문을 필자가 해석했음.

은 것과 비교하면 [사례 4]에서는 고양이가 면박당하는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고양이가 하느님에게 이러한 면박을 듣는 것은 날씨의 미묘한 변화나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여 앞발을 들어 얼굴을 닦는 고양이의 예민한 습성에서 비롯된 이야기라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나열한 사례에서와 같이 고양이가 십이지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십이지의 유래를 말하는 설화에서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는 고양이가 개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친근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십이지에 들어가지 못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헌상에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본 논문에서는 십이지 중에서 쥐가 유독 고양이를 속이는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과 연관 지어 해답을 유추해 보기로 한다.

첫째, 쥐가 십이지에서 처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관련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쥐는 십이지를 상징하는 모든 동물 중에서 그 외모가 가장 작고 볼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가 십이지의 선두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추측과 타당한 근거가 될 만한 이야기의 배경에는 쥐의 외모와 습성, 생물학적인 특성 등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밤에 천정을竄다니는 쥐의 야행적인 습성은 앞의 사례에서와 같이 쥐가 신에게 가기 전에 소의 집 천정에 몰래 숨어서 소의 동태를 살피는 것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자신의 걸음이 느리다는 것을 아는 소가 다른 동물들보다 하루 일찍 출발하자 살짝 소의 등에 올라타는 것도, 몸집이 소에 비해 극히 왜소한 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약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쥐야말로 민첩한 고양이를 속일 수 있는 동물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더구나 두 동물의 외모를 비교할 때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 납득이 갈 만한 방법은 쥐가 소를 속여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눈가림하는 것이었다. 즉 쥐가 몰래 소 등에 올라타는 것처럼, 쥐는 고양이에게 하느님 집에 인사하러가는 날을 하루 늦게 알려주게 된다. 달리 말하면 작고 볼품없는 쥐가 고양이를 제치는 최선책으로 생각한 것은 이 같은 속임수를 쓰는 것이었다. 쥐는 고양이에게 아예 다른 동물들과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날짜 자체를 속였으며, 결과적으로 고양이는 십이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둘째, 고양이가 십이지에서 제외되는 이유에 대해 추론되는 것은 고양이와 호랑이의 생태적인 유사성이다. 즉 호랑이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이라서 두 동물은 모양과 행동의 민첩함 등이 매우 비슷한 상징성을 지닌다. 이에 대한 사례는 일본의 장례 풍속에서 사자(死者)와 호랑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라요케(虎余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라요케란 장례식을 인일(寅日)에 치루는 것을 매우 금기시하며 십지어 인일에 장례를 행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도라가에시(虎返し)라고도 한다. 만일

인일에 장례식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승려의 염불을 동반해야 하며, 또한 죽은 날로부터 칠일 이내에 인일이 끼여 있으면 절에 가서 도라요케를 받는다 고 한다. 이를 도라마쓰리(虎祭)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죽은자(死者)를 위하여 인일에 마쓰리를 하는 것은 죽은자에게 미칠 액을 떨치기 위해서이다.<sup>17)</sup> 이와 같이 도라요케, 도라가에시, 도라마쓰리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명칭은 다르지만 장례식을 치를 때 공통적으로 인일을 기피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죽은 자에게 인일은 매우 터부시되는 날이며, 죽은자에게 인일을 금기시 한다는 것은 곧 호랑이가 지니는 그 어떠한 상징성이 죽은 자로부터 배제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십이지에서 인(寅)이 상징하는 의미는 움직임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움직임이란 생명이 솟아나는 봄의 기운을 비롯한, 만물의 소생,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寅)은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가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죽은 자란 그 동안의 활동을 접고 움직임이 없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취하여 이 생(生)이 아닌 다음 생으로의 출발을 준비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장례식을 앞두고 인에 해당되는 움직임, 활기, 소생 등을 상징하는 인일이 끼여 있는 것은 반드시 금기시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여기에서 발전하여 일본인들은 일본에서 살지 않는 호랑이 대신에 고양이가 죽은 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매우 금기시하기에 이른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호랑이가 고양이과에 속하기 때문으로, 고양이는 호랑이와 매우 유사한 생태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호랑이가 지니는 움직임의 상징성, 즉 활기참은 고양이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일본의 장례 풍속에서는 ‘관 위를 고양이가 넘어가게 하지 말라’ 라든가 ‘죽은 자를 고양이가 뛰어 넘으면 다시 일어나서 걷는다.’라는 등의 속신(俗信)이 전해지는 것이다.<sup>18)</sup> 따라서 이와 같이 호랑이와 유사한 상징성을 지니는 고양이는 비록 일상에서 민중에게 매우 친밀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십이지에는 굳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논의를 정리하면 호랑이나 고양이같이 상징성이 중첩되는 두 동물이 동시에 십이지의 구성원이 된다면, 십이지 동물들이 나타내는 상징성의 차이는 뚜렷하지 못할 것이다. 즉 근소한 상징성의 구별과 동시에 유기체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 십이지의 구성에서 상징성이 중복되는 두 동물을 나열하는 것은 차별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단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설화를 향유하는 민중은 쥐를 쫓는 고양이의 습성과 결부시켜 쥐와 고양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흥미롭게 발전시켰던 것으로 추론된다.

17) 吉野裕子(1994), 앞의 책, pp.78~79 참조.

18) 吉野裕子(1994), 앞의 책, pp.77~79 참조.

일본 민담에 나타나는 십이지의 유래에 대한 내용은 <쥐와 소의 경쟁>의 유형 4화와 <쥐와 고양이의 갈등>의 유형 4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설화에서 중심이 되는 동물의 상징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 십이지의 유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내용은 동일하다. 즉 십이지의 유래를 나타내는 대표 동물인 쥐와 소, 쥐와 고양이라는 세 동물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파악한 것이다.

두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첫째, 쥐와 고양이의 사이가 갈등을 겪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두 번째는 소와 쥐와의 경쟁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약자가 트릭을 써서 강자를 제압한다는 점이다. 이는 두 유형에서 쥐가 자신보다 몸집이 큰 소를 속이거나, 자신보다 훨씬 빠른 고양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십이지의 유래에 관한 설화는 십이지에서 1등과 2등이 되는 쥐와 소의 경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고양이가 쥐에게 속아서 십이지에 낄 수 없었던 쥐와 고양이의 갈등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 4. 불교의 십이지 유래 설화의 유형 및 의미

불교와 십이지와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는 설화 중에서 석가(釋迦)가 12동물을 선정하여 12동물이 천국의 수문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4.1 <쥐와 고양이의 갈등> 유형

이 유형은 천국의 수문장으로 선발된 12동물 중에서 고양이가 무술의 스승이기 때문에 가장 앞자리에 앉았었지만, 나중에는 쥐의 속임수에 의해 고양이가 수문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 [사례 5]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은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오른편에 있는 지혜의 문(門)을 관장하는 보살이다. 하루는 석가가 대세지보살을 불러 천국으로 통하는 12개문의 수문장(守門將)을 지상의 동물 중에서 선정하여 1년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세우도록 했다. 이에 대세지보살은 12동물을 선정하고 그들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모두 불러 모았다. 12동물 중 고양이는 모든 동물의 무술 스승이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순서대로 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를 앉힌 후에 석가여래에게 훈계를 청하려고 갔다. 석가를 기다리던 고양이는 갑자기 뒤가 마려워 참다 참다 견딜 수 없어 잠시 으스스한데 가서 뒤를 보려고 자리를 비웠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석가가

왕립하셨다. 석가가 소집된 동물들을 살펴보니 한 동물이 부족했다.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물어보니 마침 고양이를 따라 구경 온 생쥐가 쫓르르 달려나와서 자신은 고양이 친구인데 고양이는 수문장의 일이 힘들고 번거로워서 수문장이 되길 원치 않아 돌아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석가는 그럼 네가 고양이 대신 수문장을 맡으라고 하여 마침내 쥐를 포함한 12동물이 천국의 수문장이 되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고양이는 간교한 쥐에게 원한을 품고 영원토록 쥐를 잡으러 다니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고양이와 쥐는 서로 천적(天敵) 사이가 되었다.<sup>19)</sup>

[사례 5]는 불교와 관련된 십이지의 유래, 즉 여기서는 12동물이 천국의 수문장을 맡게 되는 설화이다. 석가에 의해 12동물이 정해지는 이야기이며, 12동물에서 고양이가 제외되는 이유도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십이지 유래 설화와 12동물 면에서 그 연계성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사례 5]에 등장하는 12동물은 오늘날의 십이지와 비교할 때 그 명칭과 순서가 완전히 동일하다. 단지 설화 속의 12동물은 석가가 천국의 수문장을 고르는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사람이 태어난 해(年)를 상징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야기를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석가가 대세지보살에게 12개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을 뽑으라고 명한다.
- ② 대세지보살은 12동물을 선정하여 고양이를 선두로 차례대로 앉힌 후에 석가에게 훈계를 청하러 간다.
- ③ 고양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석가가 왕립하자, 쥐가 고양이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거짓말을 한다.
- ④ 석가가 쥐에게 고양이 대신 수문장의 자리를 맡으라고 명한다.
- ⑤ 쥐를 포함한 12동물이 천국의 수문장이 된다.
- ⑥ 쥐의 거짓말 때문에 12동물에서 제외된 고양이는 이때부터 쥐와 천적 사이가 된다.

[사례 5]에서 12동물은 석가에 의해 천국의 수문장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고양이는 쥐의 간교함으로 인해 12동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때부터 고양이와 쥐는 천적이 된다는 연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생물학적으로 두 동물이 쫓고 쫓기는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여기에는 불교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새롭게 가미되어 이야기가 구성된 점을 알 수 있다. 석가는 물론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 등이 등장하는가하면 동물 중에서 천국의 수문장을 뽑는다는 설정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은 인간과 친근한 동

19) 李滌旭 著(1999), 앞의 책, p.54

물인 고양이가 십이지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즉 쥐의 거짓말로 인하여 고양이는 십이지에서 제외되며, 두 동물은 이로 인하여 아직까지 갈등을 겪는다는 유래담이다.

그러나 불교 설화에 등장하는 십이수(十二獸), 즉 오늘날의 십이지는 이와 같이 단순한 이유에서 선택된 것만은 아니다. 12동물과 불교의 핵심교리하고 할 수 있는 연기법(緣起法)의 십이인연(十二因緣)과 같이, 12라는 숫자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점은 불교와 십이지와의 개연성(蓋然性)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십이인연경(十二因緣經)』과 『십이연생상서경(十二緣生祥瑞經)』, 그리고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등에서 십이수(十二獸)가 자주 언급되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먼저 『십이인연경』을 중심으로 십이(十二)라는 숫자가 지니는 상징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sup>20)</sup> 『십이인연경』은 불교의 중요한 기본 교리의 하나인 인과법(因果法), 그 중에서도 십이인연(十二因緣)에 대해 설한 경이다. 십이인연은 과거에 지은 업(業)에 따라서 현재의 과보(果報)를 받고 현재의 업에 따라서 미래의 고(苦)를 받게 되는 열두 가지 인연을 말한다.<sup>21)</sup> 즉 12연기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고(苦)가 생겨나서 사라지는 것을 12단계로 나누어 밝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불경에서 말하는 12라는 수의 개념은 부처님이 깨치신 우주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 다른 불경에서는 십이와 관련지어 십이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이하 대집경)에는 각각의 열 두 동물이 사방(四方)의 동굴 안에서 자애를 닦고 항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염부제(閻浮提)안을 순행(巡行)하는 등의 수신과 중생에게 교화를 계속한다. 이미 과거 부처에게 발원(發願)하여 한 동물이 일일(一日)과 일야(一夜)에 염부제를 편력(遍歷)하고 나머지 열한 동물은 안주하여 자애를 닦는다.<sup>22)</sup> 1일부터 쥐를 선두로 하여 2일에는 소, 3일에는 사자 등으로 이어져서 13일이 되면 다시 쥐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열두 달에 이르고 열두 해를 거치게 되는 동안 중생을 계속해서 조복(調服)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집경 二十三』에서는 열두 동물이 각각 방위의 의미와 시간의 관념을 확실히 지니는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십이수는 은산에 사는 사자를 제외하고 오늘날의 십이지 동물과 대동소

20) 『십이인연경』은 『아함경(阿含經)』 중의 하나인 『잡아함경(雜阿含經)』 권 제15(0365~0406)에 속해 있다. 『아함경』이란 경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장아함(長阿含)과 중아함(增阿含), 취급하는 주제나 대화자의 종류 등에 따라 집성한 잡아함(雜阿含), 법수(法數)에 따라 분류한 증일아함(增一阿含) 등을 말한다. 김월운 옮김(2006), 『잡아함경 1』, 동국역경원, pp.13~16 참조.

21) 불교 교설의 중심축은 연기법이므로 어떤 교설이라도 연기법의 틀 안에 있다. 묘원(2011), 『12연기 2』, (주)도서출판 행복문화, pp.138~154 참조.

22) 동국역경원(2009), 한글대장경 51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1』, e-book, pp.639~641 참조.

이다. 나아가 불교에서의 12수는 동물 그 자체의 형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신과 교화를 수행하는 보살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경에는 십이지가 여러 곳에 등장하여 십이연생을 설명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12수는 이미 방위의 의미와 시간의 관념을 지니는 것으로 묘사되며, 12(十二)라는 숫자가 지니는 상징성은 불교의 핵심교리인 12연기법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나아가 불경에 묘사된 십이지는 다양한 비유의 상징체계를 통하여 여러 경전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례 5]는 이와 같은 불경과 십이지와의 관계성에서 발전한 설화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십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논하는 12동물에 대한 관심을 불교 속에서 찾으려 할 때 과생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동물에서 고양이가 빠진 것에 대한 의문은 석가가 수문장을 정할 때 갑자기 나타난 쥐에게 밀렸기 때문이라는 발상으로 대치했다고 여겨진다. 이는 십이지에서 처음이 이미 음양오행의 상징성에 의해서 쥐라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불교의 십이지 유래 설화와 일본의 십이지 유래 설화를 비교하면 12동물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 년씩 수문장이나 대장이 된다는 동일한 서사구조가 발견된다. 여기에는 고양이가 쥐에게 속아서 십이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며, 이후에 두 동물이 갈등을 겪게 된다는 공통점도 동시에 나타난다. 단지 동물들의 경주를 주관하는 자와 그 목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위의 예문은 불교권의 문화에서 불교를 신봉하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십이지 유래에 관한 설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유교권의 국가에서는 석가대신 최고의 통치자인 황제가 동물을 소집하며, 또한 종교를 떠나서 회자되는 이야기에서는 하느님이 12동물을 소집하여 각각 1년씩 대장으로 삼는다는 줄거리와 그 맥락이 일치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 『日本昔話大成』에 수록된 십이지 유래 설화 중에서 석가모니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 [사례 6]

①석가모니가 가장 빨리 도착한 자부터 십이지를 정하겠다고 한다. 소는 느리기 때문에 전 날 밤부터 걷기 시작한다. 쥐는 약아서 소의 짐 속에 숨어서 간다. 고양이는 사이가 좋은 쥐가 함께 가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에 해가 떠오르고 십이지가 결정되며 고양이는 빠진다. 고양이는 화가 나서 쥐를 쫓게 된다. 그 한(恨) 때문에 지금도 또한 고양이는 쥐를 쫓아다닌다.<sup>23)</sup>

23) 오积迦様が、一番早く着いたものから十二支を決めるといふ。牛は遅いからと、前夜から歩き出す。鼠はずるいの

②석가모니가 병에 걸려서 임종했다는 소식이 퍼진다. 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멧돼지가 모인다. 고양이는 들판에서 쥐를 쫓고 있는 사이에 잊어버린다. 공작은 화장을 하는 중에 통지를 받는다. 고양이와 공작이 가자 장례가 끝나버렸다. 고양이와 공작이 십이지에 들어가지 않은 유래.<sup>24)</sup>

③천축국의 석가모니가 동물들에게 설법 하는 날의 포고를 낸다. 소는 걸음이 느려서 전날부터 출발한다. 쥐는 그것을 보고 소 등에 타고 가서 소의 코 끝에 선다.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멧돼지 순으로 줄을 서서, 그대로 역(曆)의 십이지로 결정되어 설법을 듣는다. 쥐는 고양이에게 다른 날을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지금도 원망하며 뒤를 쫓는다. 제비는 화장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제 시간에 맞추지 못했다.<sup>25)</sup>

[사례 6]에서 ①②③의 공통적인 서사구조는 석가를 축으로 하여 십이지가 결정되는 것과 십이지에서 고양이가 제외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①에서는 일반적인 십이지의 유래 설화에서처럼 고양이가 쥐에게 속아서 십이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구조가 동일하다.

②에서는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었기 때문에 십이지에서 제외되며, 공작은 그 화려한 자태 때문에 화장을 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십이지 유래에 관한 설화 중에 쥐가 십이지에서 1등이라는 내용이 누락된 유일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고양이와 공작이 십이지에 들어가지 않은 유래라는 마지막의 문장으로 미루어볼 때 쥐는 십이지에 속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③에서는 고양이가 역시 쥐에게 속아서 십이지에서 제외되며 제비는 화장을 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것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①②③의 설화에서 고양이가 공통적으로 빠지는 내용은, [사례 5]의 불교의 십이지 유래 설화에서 고양이가 십이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서사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십이지 유래 설화는 석가를 기본 축으로 십이지가 결정되고 고양

で牛の荷物の中に隠れていく。猫は中のよい鼠と一緒にいくと約束をしたので待っている。そのうちに日が昇り、十二支が決まり、猫は抜ける。猫は怒って鼠を追いかけようになる。その恨で今なお猫は鼠を追いかける。 関敬吾(1987), 『日本昔話大成』 1, 角川書店, p.85

24)お釈迦様が、病気になって臨終のお知らせが飛ぶ。牛・寅・卯・辰・蛇・馬・羊・猿・鶏・犬・猪が集まる。猫は野原で鼠を追い掛けているうちに忘れる。孔雀は化粧の最中に知らせをうける。猫と孔雀が行くと葬儀が終わっていた。猫と孔雀が十二支に加らない由来。 関敬吾(1987), 앞의 책, p.85

25)天竺のお釈迦様が動物に説法を聞かせる日の触れを出す。牛は足が遅いので前日から出かける。鼠はそれを見て牛の背中に乗って行き、門前で牛の鼻先に立つ。鼠・牛・寅・卯・辰・蛇・馬・羊・猿・鶏・犬・猪と並び、そのまま歴の十二支に決められて説法を聞く。鼠は猫に日を聞かれて嘘を教えたので、今でも恨まれて追い掛けられる。燕は化粧に手間取って間に合わなかった。 関敬吾(1987), 앞의 책, p.86

이가 십이지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십이지 유래 설화는 불교의 십이지 유래 설화를 근간으로 파생되었으며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 5. 마무리

일본의 민담에서 십이지의 유래에 대한 내용은 <쥐와 소의 경쟁>의 유형 4화와 <쥐와 고양이의 갈등>의 유형 4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유형은 두 동물의 몸집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으로, 몸집이 작아서 약자로 여겨지는 쥐가 트릭을 써서 자신보다 훨씬 몸집이 큰 소를 제압하여 십이지에서 1등이 되는 이야기이다. 두 동물의 크기가 대조적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십이지에서 1등이 되는 약삭빠른 쥐와 우직하여 2등을 한 소에 초점이 맞추어진 ‘쥐와 소의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담을 향유했던 민중의 시선에 의한 스토리의 재구성이라고 여기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발가락 우기설과 음양오행설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십이지 유래 설화에서 성실함과 묵묵함을 바탕으로 2등을 한 소는 불교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찾아 헤매는 수행자의 참된 모습과도 일치되는 점을 살펴보았다.

후자의 유형은 쥐의 거짓말로 인해 십이지에서 고양이가 제외되어 두 동물이 갈등을 겪는다는 공통적인 서사구조를 지닌다. 즉 쥐는 고양이에게 동물들이 시합하는 날을 거짓으로 하루 늦게 가르쳐 주었고, 결과적으로 고양이는 십이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고양이는 이때부터 쥐를 잡아먹게 되었다는 유래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십이지의 유래 설화에서 고양이가 제외되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는 고양이가 개와 같이 인간에게 친근한 동물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의문일 것이라는 점을 일차적으로 거론하였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론을 본 논문에서는 요시노(吉野)의 음양오행설에 입각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십이지에서 인(寅)에 해당되는 호랑이는 움적임의 상징성을 지니며, 같은 과에 속하는 고양이도 유사한 상징성을 내포하므로 십이지에서 고양이가 배제된 것으로 추론하였다. 일본의 장례 풍속에서 고양이를 관(棺) 가까이 접하지 못하게 하거나 관을 뛰어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 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차후로 고양이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문헌과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십이지 유래에 관한 설화는 십이지에서 1등과 2등이 되는 ‘쥐와 소의

경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쥐와 고양이의 갈등'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나머지 십이지 동물에 대해서는 그 순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도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를 불교에서의 십이지 유래 설화와 비교할 때 공통적인 서사구조가 발견된다. 불교 설화에서도 석가가 12개의 관문을 지키는 수문장을 고를 때 쥐의 속임수 때문에 고양이가 수문장에서 배제되고 대신 그 자리를 쥐가 차지하게 된다. 즉 쥐가 고양이를 속여서 고양이가 결과적으로 십이지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그 자리를 쥐가 대신하게 되어 두 동물이 갈등을 겪는 내용이 두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십이지 유래 설화와 불교의 십이지 유래 설화는 절대자에 의해 십이지가 결정되며, 쥐의 속임수로 인하여 고양이가 십이지에서 제외되고 쥐가 일등을 차지하는 동일한 서사구조라는 점을 파악하였다.

일본에 고양이가 들어온 것은 당나라로부터 불전(佛典)을 옮길 때 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며, 그 당시에는 천황에게 고양이를 상납할 정도로 고양이는 비싸고 희귀한 동물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십이지 유래 설화에서 고양이가 제외되는 이야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설화라기보다는 불교의 십이지 유래 설화가 유입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민중에게 친밀하지 못했던 동물이 민담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십이지 유래 설화의 정확한 형성 시기는 차치하더라도 불경에서 대중을 계도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확한 십이수의 기록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특히 일본의 십이지 유래 설화에서 쥐가 속임수를 써서 고양이를 대신해 십이지에 들어가서 일등이 되는 내용과 나머지 십이지 동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동일한 서사구조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일본 민담 속에 나타난 십이지 유래 설화에 대한 의미와 특성을 도출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한일의 십이지 유래 설화의 비교 및 그 외의 동아시아 국가와의 십이지 유래 설화를 비교하는 것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未来社編(1974) 『日本の民話』(총 26권) 未来社.
- 강등학 외(2002),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pp.164~168 참조.
- 김월운 옮김(2006), 『잡아함경 1』, 동국역경원, pp.13~16 참조.
- 동국역경원(2009), 한글대장경51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1』, e-book, pp.639~641 참조.
- 묘원(2011), 『12연기 2』, (주)도서출판 행복한 숲, pp.138~154 참조.
- 양희석 외(2010), 「띠와 쥐의 설화」, 『中国文学』제65집, 中国語文学会, p.16
- 吳裕成(1993), 『人間与十二属相』, 天津大学校, pp.3~4
- 李符永 著(2000), 『韓国民譚의 深層分析』, 집문당, pp.15~16
- 李濬旭 著(1999), 「韓國의 띠문화」, 황금시대, pp.15~17
- 劉堯漢(1984), 『彝族天文学史』, 雲南版, p.35 참조
- 천진기(2003),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pp.51~52 참조.
- 華惠倫 외(1990), 『12生肖 叢書, 蛇』, 上海科学技術出版社, pp.7~8
- 大場磐雄(1996), 『十二支と十二獸』, 北隆館, pp.1~4
- 桜井徳太郎(1996), 『昔話の民俗学』, 講談社, pp.240~241
- 関敬吾(1987), 『日本昔話大成』 1, 角川書店, pp.82~83
- 福田アジオ他 編集(2000), 『日本民俗大事典』, 弘文官, p.819
- 吉野裕子(1994), 『陰陽五行と日本の民俗』, 人文書院, pp.77~79 참조.

## 要 旨

『日本の民話』において十二支の由来に関する内容は、〈ネズミとウシの競争〉タイプの4話と、〈ネズミとネコの葛藤〉タイプの4話に分けられる。前者のタイプは二匹の動物の体の大きさに焦点を合わせた内容で、体が小さくて弱者と見なされるネズミが、謀計をめぐらして自分よりずっと大きなウシを制圧し十二支で一等になる話だ。本稿では、このような話が生まれるようになった理論的背景を、足指偶奇説と陰陽時位説から推論して分析した。

後者のタイプは、ネズミの嘘によりネコが十二支から除外されるという共通した叙事的構造となっている。すなわち、ネズミはネコに動物たちが試合する日を一日遅く嘘をついて教え、結果的にネコは十二支に入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これを後で知ったネコは、その時からネズミを捕まえ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由来談でもある。このように、十二支の由來說話においてネコが除外された由来を、本稿では吉野の陰陽時位説に立脚して結論を提示した。言い換えると、十二支で寅に当たるトラは動きの象徴性を持ち、同じ科に属するネコも同じような象徴性を持つため、十二支からネコが排除されたものと推論した。

日本の十二支の由来民話の特徴は、十二支で一等と二等になる「ネズミとウシの競争」を中心に扱っており、ネズミがネコを騙す「ネズミとネコの葛藤」ももれなく登場する。残りの十二支の動物については、その順位がどのような方法で決定されたのかについて、まったく言及されていないのも共通している。これを仏教の十二支の由來說話と比較してみると、絶体者によって十二支が決定され、ネズミの謀計でネコが十二支から除外されてネズミが一等になるという同一の叙事的構造であることが分かる。日本にネコが入ってきたのは、唐の国から仏典を運ぶときにネズミの被害を防ぐためであり、ネコが高価で珍しい動物であった時代的な状況を考慮すると、日本の十二支の由來說話においてネコが除外される話は、仏教の十二支の由來說話が入ってきた影響であると推論できるであろう。民衆に親しみのなかった動物が、民話の中に主人公として登場するのは不可能なことであったからだ。特に、日本の十二支の由來說話において、ネズミが謀計をめぐらしネコに代って十二支に入り一等になる内容と、他の十二支の動物については特別に言及がないという同一の叙事的な構造もこれを傍証している。

キーワード：日本の十二支の由來說話, 鼠, 牛, 猫, 象徴, 葛藤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